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기사를 심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노년시대

## 실버NEWS

### 삶의 지혜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

노년시대.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다.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진 실버계층, 마음껏 일하며 보람된 노후를 준비한다.”



# “축구를 할 수 있어서 노년이 즐겁고 행복”

## 축구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 김영훈씨 ... 고성지역 유일의 60세 이상팀 '삼진축구회' 멤버

“축구는 나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축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재미도 느낍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 않은 '노익장'을 과시하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김영훈씨(68세, 사진).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열린 제30회 고성군축구연합회장기 대회장서 만난 그는 비록 이번엔 직접 경기를 뛰지는 않았지만, 후배들을 격려하며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성지역 60대 노년층으로 구성된 삼진축구회 회원인 김씨는 거진 토요일축구회 초창기 멤버로, 고성지역 축구의 산 증인이다.

북고성 출신으로 7세때 6.25 전쟁 중 피난 내려와 거진에 정착한 그는 고성중학교 시절 축구 선수로 활약한 고성지역 1세대 축구인이다.

중학시절 축구선수로 두각을 드러냈던 김씨는 강릉농업고등학교에 스키아웃대 선수생활을 계속했다. 20세때까지 축구선수로서 명성을 높였던 그는 이후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로 축구계를 떠났다.

그러나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30대 들어 거진 조기축구팀인 토요일축구회 일원으로 다시 축구를 시작했다.

거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인 김정희씨는 “우리 영감은 나보다 축구를 더 사랑한다”며 “TV도 축구만 시청하다보니 서로가 따로 시청을 하게 된다”고 했다.

김씨는 “지금도 축구시즌만 되면 축구장에서 살다시피 한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하다”고 웃으면 말했다.

김씨는 “축구 선수시절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도 축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을 유지한다”며 “축구 경기를 구경하거나 축구장에서 운동을 하는 게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토성면사무소 지난 5일 69명 대상



지난 5일 토성면사무소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도원의 강민기 차장이 교육을 하고 있다.

토성면사무소는 지난 5일 오전 9시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토성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69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고성군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매월 1회씩 의무적으로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수립해 2시간동안 진행된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도원에서 강민기 차장이 강사로 나와 안전보건 의식 고취, 고령근로자 건강관리,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승근 기자

## 우리마을 경로당 / 거진읍 거진 6·7·8리 통합경로당

# 3개 마을 400여 어르신들 보금자리



임하술 회장

11개의 마을로 구성된 거진의 중심권에 위치한 거진 6리, 7리, 8리는 전통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3개리의 어르신들이 한데 어울려 운영하고 있는 거진 6리, 7리, 8리 통합경로당은 400여명 마을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로 큰 인기이다.

과거 구 거진읍사무소 뒤편에 위치했던 통합경로당은 지난 2004년 10월 현재의 위



거진6,7,8리 통합 경로당 전경.

치로 옮겨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 경로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임하술 회장(84세, 사진)은 “경로당 위치가 좋고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 찾아오는 어르신이 많다”며 “화목한 가족 분위기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뿌듯해했다.

임하술 회장은 “우리 경로당은 치매 예방을 위해 회원들과 화진포 주변에 유실수를 심고 연 2회씩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질서 확립을 위해 캠페인 홍보 활동 및 지역주변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